



[산업]
美서 맞붙는 삼성·LG
5G 폰 선점 노린다
05



Economy

Market indicators table with arrows and values for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반도체 어닝쇼크의 역설, 메모리 바닥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위해 출국

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전용기에 올라 1박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24시간, 비행시간은 30시간에 가까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워싱턴 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견하고, 같은날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워싱턴 내 달레스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는 12일(우리시간) 밤 귀국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

에 집중하는 실무방문이다.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외의 특별한 일정은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역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삼성, 1분기 영업이익 6.2조
지난해 보다 9.4조 감소
반도체 암흑기 시작 우려

미중 무역분쟁 종착역에
반도체 부문 BSI 상승세 등
‘슈퍼사이클 2막’ 기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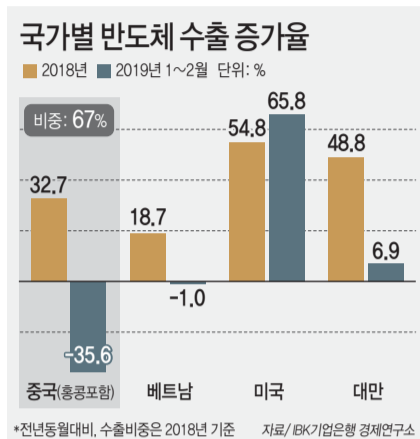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5일 밝힌 올 1·4분기 잠정 영업이익(6조2000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15조6400억원) 대비 60% 줄었다. 액수로는 9조4400억원이나 줄었다. 매출액도 52조원으로 14% 감소했다. 수치만 보면 ‘어닝 쇼크’로 불릴 수준이다.

덕분에 반도체 시장이 초장기 호황을 뜻하는 ‘슈퍼사이클(Super Cycle)’이 끝나고 ‘반도체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있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부진은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수출 출하를 앞당긴 데 따른 지체효과와 글로벌 수요둔화가 맞물린 결과로 메모리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닌 모양새다. “메모리반도체 사이클이 곧 바닥을 찍을 것”이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반도체 가격 하락의 원인인 미·중 무역분쟁이 종착역(반도체 수요증가)을 향해 가고 있어서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지수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올해 수익률은 18%(1분기 기준)를 넘어섰다. S&P500지수(12%)를 압도한다.

◆JY의 자신감, 반도체BSI 등 살아나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한국과 대만의 수출 동향을 고려할 때 조만간 반도체



사이클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3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수출합계(계절조정)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월 -17.2%에서 3월 -14.9%로 개선됐다.

한국·대만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사이클 판단의 중요 지표다. 아시아 전체 반도체 수출의 48%(2018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양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 메모리, 파운던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2월 국내 반도체 재고율도 114.0%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119.0%) 보다 하락했다. 반도체 부문 경기실사지수(BSI)도 상승세다. 1월 70에서 2월 72, 3월 75로 개선됐다.

씨티는 “경제지표 개선, 최근 아시아 반도체 선행지수 반등을 고려할 때 2~3개월 후 반도체 산업의 상승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2막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카’와 ‘머신러닝’ 등 새롭게 각광받는 신기술들이 모두 상당량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000년대 중반 PC 수요 폭증과 2010년 초 모바일

(2018년 반도체 기업 매출)

Table with 4 columns: Company, Sales, Growth, M/S. Rows include Samsung, Intel, SK Hynix, Micron, Broadcom, Qualcomm, and Total.

단위 : 십억 달러, % /가트너 (2019.1)

일 기기 확산 시절에 찾아왔다. 약 5년 주기로 새로운 산업이 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다.

끝이 보이는 미·중 무역 갈등도 희망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인상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관세가 오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와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이 많은데 미·중 통상전쟁에 따라 이 분야의 타격이 크다”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간재 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꾸로 생각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면 그 수도도 클 수 있다는 얘기도.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의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 대화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3면에 계속)

/김문호 정치경제부장 kmh@metroseoul.co.kr

좌충우돌 5G... “내 돈 내고 베타 테스트?”

5G 1주일, 안정화 잡음 여전

지난 3일 상용화된 5세대(5G) 이동통신이 개통된 지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금제 손질, 서비스 이용 등 안정화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을 필두로 5G 스마트폰이 보급됐지만, 5G 네트워크가 잘 잡히지 않고 요금제를 수정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다만,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서비스이니만큼 5G가 안정화 기간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G 안정화 2~3년 정도 걸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3

일 밤 11시 서비스를 시작한 5G는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주말 각각 3만명, 2만명 이상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밝히며 5G 서비스 출시 초기에 경쟁 우위를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창한 ‘세계 최초 상용화’ 뒤에는 5G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부정적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 많은 지역, 건물 내부,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5G폰을 구매하기 전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너무 느리다”, “지방에서 5G가 안 터져 LTE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G 스마트

폰 구매를 고민하는 댓글에는 “좀 더 기다렸다 사야죠”, “내 돈 내고 베타 테스트 되는거죠”라는 냉소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4월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만 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5.6%인 7만 2983개가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G 기지국 송수신 장치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G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LTE로 전환해 이용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초기 때와 같이 5G도 안정화되기까지는 2~3년 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



지난 5일 오전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 앞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10 5G’ 개통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SK텔레콤

다고 본다. 이제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만큼, 5G 장비도 부족하고 5G 주파수 특성 상 더 촘촘하게 망을 깔아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5G 네트워크 장비는 하나의 기지국에서 360도를 커버하기 위해 기지국 당 3개의 장치가 필요해 더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5G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3.5기가헤

르츠(㎐)와 28㎐로 LTE보다 고주파다. 속도는 빠른 대신 손에 땀을 흘리는 직진성이 강해 도달거리가 짧다. 장애물도 돌아가지 못하고 튕겨 나온다. 통신사마다 기술은 다르지만 이 때문에 LTE보다 기지국을 약 30% 정도 더 구축해야 한다.

(5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